

제 35 호

연중제 17 주일
(강림 후 7)

1973. 7. 29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강론】

〈순정이 제26호에서 계속〉

새신하는 교회 II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가변성(可變性)

김 종 택 신부

1. 불가변적 교리

제일 먼저 또한번 확실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즉 가톨릭 신앙에 입각해서 교회의 교도직에 의하여 한번 절대적이요, 무조건 신앙조목으로 판정되어 하느님이 계시한 고로 승인해야 할 가르침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 이러한 교리는 불변의 신앙 조항이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의 양심에 신앙의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회의 교도직에 따른 신앙의 불가변성은 교리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교리사(敎理史)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불변의 교리도, 그 뜻하는 바가 실로 광범위하고, 한층 더 명확히 될 가능성이 항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 교도직에 의한 신앙 선언을 할때, 아직 의식하지 안했던 오해의 여지를 제거하고, 교리의 본 내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톨릭 이외의 그리스교와의 예규메니칼한 대화에도 종래의 교리를 새롭게 표현함으로써 그리스교 간의 일치의 길을 발견하고 있다. 요컨대 불가변의 교리도, 여러점에 있어서 역사를 갖고있고, 불가변성의 교리내에 발전성도 있다. 신앙조항이 신앙 전체에 대해서 갖는 관계가 명료해짐에 따라서, 개개의 신앙조항이 더욱 깊이 이해되고 신앙의 종합적 이해에도 길이 열린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앙 이해에도, 당연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교황의 수위권에 대한 교리를 주교는 교황의 하급 지방관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왔다면 제2 바티칸의 공의회가 그 어두움을 밝혔다고 하겠다.

2. 정의(定義)되지 않는 교리

교회의 가르침을 변혁할 때, 명확히 정의된 신앙 조목은 별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권위있게 가르치지만, 정의가 안된 신앙 조목은 불가변의 교리는 아니다. 교리 신학과 윤리 신학에 관해서 가르칠때와 해석할 때는 오해와 실수가 빈번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여기에서 있어서는 안될 것은 이러한 권위있는 신학적 해석에도 변화가 있고, 도리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가르침은 기하학의 공식 같이 벌써 완성해 버린 약간의 명제(命題)를 모여 놓은 것이 아니고, 항상 도통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교리인 하느님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

다. 그래서 교도직이 최후적으로 결정을 내려 진실자에게 의무지울 때까지는 누구든지 침묵만을 지켜야 된다고 할 수 없다. 도리어 끊임없이 더 적절한 설명을 하게 힘쓰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신앙조항까지도 어두어지고, 생생한 신앙까지도, 위험을 느끼는 결과가 된다.

각 신자는 교회의 교도직이 권위있게 선언한 가르침에 존경을 갖고 동의하며, 그 가르침은 지금 자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 신앙 조목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를 위한 설명이나 지도는 어차피 필요한 것이다.

윤리 신학에 있어서는 교회의 교도직과 신학적 해석과의 관계가 아주 많다. 참으로 여기에서 인간 생활상황의 늘날만한 다양성에 대해서 복음의 근본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200년전에는 생각치도 못했던 다양한 현대의 상황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다만 단순히 복음과 전통적 가르침을 반복하기만 한다면 충분하게 명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다. 그것은 복음이나 전통적 가르침이 조금도 손대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때 각 신자 한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각자가 답을 찾게 할 수는 없다. 도리어 교회만이 여러 상황에 적합한 답을 찾아 내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에 장시간의 성찰의 때가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불명확성, 변동, 실험적 시도, 편향까지도 피치 못한다. 따라서 어떤 일이 신자에게 직접 절대적 신앙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교도에 의해서 신앙과 도덕상의 양심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가변적 가르침이라도 교회가 그때, 그 장소에 제일 타당한 즉 복음의 불가변적 정수에 위배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한 신자에게 의무 지우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가 있다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 되고, 신앙의 확신이나, 도덕의 객관성이나 들중어느 것이나 경솔하게 위험에 부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가르침의 인식을 안전하고 정제 하려면 의심없이 개개인의 성찰도 필요한 것이다. 이때 자기 판단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교도직이 내놓은 이유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 가변적 가르침은 현대의 상황중에서는 개정(改定)이 요구된다고 하느님 앞에서 양심적 결론을 지우는 일도 후일어나리라. 그런 때에는 자기의 개인적 판단과 행동하는 중에 그 규정울 떠날 권리를 누누나 가지고 있다. <덕진 주임신부>

※ 이 주간의 성경 ※

- 30(월) 독서 (테살로니카후서 2: 13-17, 성서 P. 473)
복음 (마 태 오 13: 31-35, 성서 P. 31)
- 31(화) 독서 (테살로니카후서 3: 1-5, 성서 P. 473)
복음 (마 태 오 13: 36-43, 성서 P. 32)
- 1(수) 독서 (테살로니카후서 3: 6-12, 성서 P. 473)
복음 (마 태 오 13: 44-46, 성서 P. 32)
- 2(목) 독서 (디모테오전서 2: 1-7, 성서 P. 476)
복음 (마 태 오 13: 47-53, 성서 P. 32)
- 3(금) 독서 (디모테오전서 2: 8-15, 성서 P. 477)
복음 (마 태 오 13: 54-58, 성서 P. 33)
- 4(토) 독서 (디모테오전서 3: 1-7, 성서 P. 477)
복음 (마 태 오 14: 1-12, 성서 P. 33)

나의 전교론

최 용 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분별없이 살다가 대개 그 연
 치(年齒) 50이 넘으면 갖가지 감회에 젖어 들게 된다.
 남을 위한 사회 봉사도 해보고 싶고, 종중(宗中) 일에도
 참여하고 싶어지는가 하면, 세상 일이 싫어져 은거 활
 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종교를 선택하여 그에 귀의(歸
 依)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생노병사(生老病死)라는 인생의 피치못할 현실 앞에서
 나 자신도 50평생을 다시 되돌아 보고, 그간 지은 수많은
 죄를 반성 참회하는 양심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10여명의 가족을 이끌고 입교하게
 되었고, 벌써 수 개월이 흘렀다. 나에게, 머지않은 장
 래에 성세를받고 견진을 받는 일만이 유일한 즐거움이다

아직은 미숙한 병아리인 주제에도 가끔 성세받은 신자
 처럼 열을 올리는 때가 있다. 유교를 숭상하는 봉건적인
 (?) 친구들이나 프로테스탄트 친구들에게, 나도 잘 모
 르면서, 천주교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내세워 주장하기
 일쑤이다. 웬지 모르면서도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장소
 를 가리지 않고 내 특유의 전교를 하게 된다. 어떤 때는
 내가 혹시 잘못하지나 않나 하고 걱정스러워 지기도 한
 다. 예비신자로 입교하기 전부터도 나는 육내외를 막론
 하고 사람이 모였다 하면 놀이터나 문장길의 장의차 안
 에서도 곧잘 내 특유의 종교철학을 피력했었다.

“갑갑 왔다가 가는 인생은 허망한 것이니 다가오는,
 누구나 면치 못하는, 죽음을 깨달고 하느님 품안에 안겨
 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다.

성서에 이르기를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
 고, 실거운 자의 마음은 상가에 있다」고 했다 곧 죽음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하루 하루 죽
 음을 향하여 살아가면서도 곧잘 그 죽음에 대해서는 모
 른척하려 든다. 도대체 이 세상에 나서 죽지 않은 자,
 누가 있던가? 삼천갑자(三千甲子)를 살았다는 동방삭이
 도, 삼신산에 불사약을 찾으러 보냈다면 진시황도 죽지
 않았던가?

사실 어쩌면 천길 낭떠러지에서 만원 버스가 굴렀어도
 숨만 계속 된다면 어찌 죽을 것이며, 총을 맞아 몸뚱아
 리가 땅을 굴러도 숨만 계속 된다면 죽지는 않는다. 어
 떻게 그리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방
 법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술을 쉴 때이다. 여기에 죽
 어서도 사는 영생의 안식이 있다.

□ 허 사 가 □

- ① 세상만사 살피니 참 헛되고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오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담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풍
- ② 인생일귀 복당산 불귀객되니
 일배황토 가련하고 가이없고나
 “솔로몬”의 그 영광 옛날이 되니
 부귀영화 어메가 자랑해 볼까
- ③ 인생백년 산대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언가 뜬구를 갈구나
 그 헛됨은 여울에 물거품 같으니
 조생모사 하루사리 생애로구나
- ④ 년년춘색 오전만 어이러 인생
 한번 가면 못오노나니 한이로구나
 금일 행원 노든 객 내일 아침에
 청산매골 말은 뼈 한심하구나
- ⑤ 압록강물 거사릴 용사 있으며
 서산낙일 지는 해 막을자 있나
 흉안소년 늙는 것 뉘 물리치며
 슬프도다 죽는 길 뉘 면할소나
- ⑥ 토지않아 무엇하나 나 죽은 후에
 육척광중 일장지 녀녀하고나
 의복않아 무엇하나 떠나갈 때에
 수의 한 벌 관 한 개 족하지 않으랴
- ⑦ 탐 흘리며 애써서 모아는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 수고로다
 빨가벗고 나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 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은가
- ⑧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져 버리고
 그 영광 꽃같이 쇠잔 하리라
 하루가고 이틀이 흉안이 늙어서
 초로같은 이 인생 참 헛되고나
- ⑨ 이 세상은 역여우 우리는 과객
 우리 생명 신속함 날라감 같고
 그 헛됨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참 헛되고나
- ⑩ 우리 희망 무언가 뜬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를 떠라가
 천국낙원 영광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로다. (복자성당 예비신자)

전주전신전화국 앞
 제과 ③5011 찻집 ③5013

개업

프 랑 스 제 과
 * 임 금 님 찻 집 *

「프랑스제과」에도 대형 에어콘 설치!
 교우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김 원 준(야고버) <보광출판사 영업부장>

왕자표연탄

전화: ②5287 ② 6504

교형 자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역전에 새로 공장을 차렸읍니다.
 최신 자동 운전기를 시설하고 품질을 보증하
 오히려 많이 이용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한수옥 (분도)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느님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그 집에 살게 하시니, 당신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리라.

□ **제 1독서**(열왕기 후서 4:42-44)
먹은 다음에 또 남은 것이 있으리라

□ **찬례송** ◎ 당신이 그 손을 벌려 주시고, 우리 원을 채우시나이다.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오면 먹을 것을 제 때에 주시나이다. 당신이 그 손을 벌려 주시면 목숨 있는 모든 것, 원을 채우나이다. ◎

□ **제 2독서**(에페소 4:1, 성서 P. 441)
몸도 하나,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뿐이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 나타나시고 하느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주셨도다. 알렐루야.

□ **복음** (요한 6:1-15, 성서 P. 215)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다.

□ 신자들의 기도

1.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주여, 우리는 지금 목이 탐니다. 땅을 가꾸어 먹고 사는 우리를 굶어 보시어 비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제똥을 갚아 주시는 주여, 한 주간 동안 국민학교 아동교리를 위해서 애쓴 교리 교사들을 위해서 비오니 그들이 현세에서도 기쁨과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3.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주여,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순결을 지켜 주소서. ◎

+ 주여 비오니, 우리들이 간절히 구하는 바를 다 들어 허락하시어 즐거움과 평화 안에 용약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영성체송**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받으리니.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뵈오리니.



성 바오로 서원

미사 시간 안내

	종	양	노	송	등	덕	진	복	자	서	학	동	전	동
주	오전	6, 10시	6,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5시반, 9, 10시		
일	오후	7시30분	8시	4, 8시	8시	8시	8시	8시	8시	8시	8시	8시		
평	오전	월, 수(6시) 금(10시-어머니)	금(10시-어머니)	월, 수, 금(10시)						월, 목(6시)		월, 수, 금(6시)		
일	오후	화~목(8시) 토(5시)	화~목(8시) 토(6시-아동)	화, 목, 토(8시)	8시	8시	8시	8시	8시	화, 수, 금, 토(8시)		화, 목, 토(8시)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신 우 라 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②2212 ②7071)
김 병 구(빈첸시오)

각종생과자 식빵 및 케익

에어콘 냉방 시설 완비 **미미 제과소**

전화 ② 6589
(미미사장 ② 3915 번)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옆)
김 민 주 (가타리나)

(소) (식)

- 1. 성년 기도문 (성 프란치스코 지은 "평화를 구하는 기도문")을 성년동안 매일 열심히 바칩시다.
- 2. 울뚜레아 7월 월례회 없음-전주 지구 남·북부 울뚜레아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 1.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각 부장은 1974년도 예산안 및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2. 분당 살림에 관심을 가지시다.
세계적인 경제파동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가정에서 겪으시는 어려움 보다도 더 심각한 애로에 분당 살림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가 8. 9월 두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분당의 교무금 미수액은 무려 150여만원으로 그 납부성적이 57%밖에 안됩니다.

75%넘는 분당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다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십시일반으로 협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교좌 분당 신자의 긍지를 지킵시다.

-분당 사도회 아뢰-

□ 지난 주일 봉헌금 30,389원, 감사합니다.

(농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구역회장님과 반장님의 전원 참석 바람
- 2.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일)
※ 성프란치스코회 월보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제7차 총회 및 제1차 강습회에 희망하시는 회원은 많은 등록을 바랍니다. (참가비 1인 2,000원)
장소: 충남 대전시 갈마동 소년들 마을(갈마골장)
일시: 8월 24일 13시-8월 26일 14시 30분까지
□ 지난 주 성미 (2말7홉) 누계 2가마 4말 3되
지난 주일 봉헌금 13,056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아동교리 하기반학 (7월29일-9월2일)
방학동안에 아동 미사가 없으니 아동들을 10시 공식 미사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 2. 성년의 기도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장님께 오셔서 받아 가십시오.
- 3. 교무금을 완납하십시오.
□ 지난 주일 봉헌금 5,468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훈 사도 회장 조성호

- 1. 복자 축일 (9월 26일)에 견진 성사
아직 견진 받지 않으신 분은 잘 준비하시어 견진 성사를 받도록 합시다.
- 2. 교무금 완납하여 분당 살림 도모시다
- 3. 부녀회 월례회 (주일 공식미사후)
- 4.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 심의회 (8월 4일 오전 10시 중앙성당)
□ 지난 주일 성미 2말 5되 5홉, 누계 171말 7되
지난 주일 봉헌금 10,80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김낙철

- 1. 아동 교리 시상식 (공식 미사후)
학부형들은 많이 참석하시어 아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 2. 9월 23일에 견진 받으실 분은 총무부에 신청 바람
- 3.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4. 주일 아동교리반 당분간 휴교
- 5. 교구비는 7월에 완납했습니다.
- 6. 사도회 월례회 (매주일 저녁미사후)
□ 지난 주일 봉헌금 8,688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 1. 프란치스코 삼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전동)
- 2. 중·고등학생 하기 특별교리에 관심을 가지시다.
① 기간-7. 30(월)-8. 6(월)매일 오후 5시
② 준비물-신약성서, 필기도구
- 3. 새 전동 건실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호(15,000원) 김선자, 정인찬, 임영미 (각 1만원), 전재복, (5천원), 김영환, 장광옥, 한규화, 권혜자, 노매자, 이옥순 (각 3천원), 무명씨(2,500원), 김인애, 서숙자, 이길만, 허준주, 정만성, 김경조, 송은순, 이원용, 조재복, 노수익, 배한수, 정진수 (각 2천원), 이영순, 송정숙 (각 1,500원), 차금순, 박명옥, 김소애, 홍명숙, 한봉수, 하상열, 문정례, 정심완, 구옥성, 송모니카, 경현순, 최병래, 김대원, 박우단, 김화중, 백윤진, 이상모, 이금난 (각1천원), 김순례(7백원), 이영섭, 한귀녀, 박영희 (각 5백원)
(타 분당분) 신우라사 김병구, 국민은행 정춘조 (각 1만원)
누계 594,700원, 자갈 100트럭, 탁주 3섬
□ 지난 주일 봉헌금 26,115원, 감사합니다.

◎ 닭·염소·야생동물 일체 ◎

화랑 상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 병 수(안당)

남부 시장 닭전 전화 6691 (교환)108



최 씨 관 집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영가 봉사 ★

최 병 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6691 교환85번)